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제13호)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임수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2022)

[수탁] 서울시 학대 예방·피해 지원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2021)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보호체계 내실화 방안-아동인권선임교사 제도를 중심으로(2020)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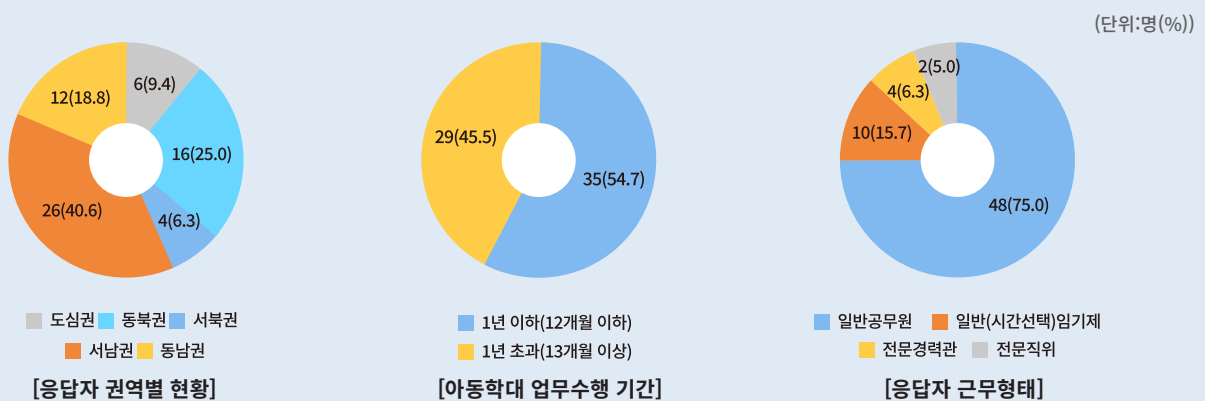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이후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화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21.5)」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발생한 16개월¹⁾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부족과 이들의 열악한 처우, 전문성의 부족 등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24시간 출동 대응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대응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공공의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역량, 협력체계, 그리고 근무환경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역량·협업체계·근로환경 조사개요

- 조사 대상 및 참여 현황 :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4명 참여(전수 97명 중 86.6%)
-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2022년 8월 8일~8월 29일



*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실시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임수경·송이은·정도영, 2022)의 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1) '20.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으로,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협업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보건복지부, 2021)

법률 및 제도 이해, 개입 방법 등 실무중심 교육 요구 높아

○ 전반적으로 자신의 업무역량을 낮게 인식하며, 법률 및 제도 이해와 개입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원함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량수준은 평균 2.45점(4점 만점)으로, 대부분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함. 특히, 역량 필요성 대비 현재 수준을 낮게 평가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지식'은 향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 지식과 판례를 토대로 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이해, 의학교육, 개입 관련 기법, 기록 및 상담, 법률에 교육'은 교육의 필요도가 높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교육 과정별로, 기본 교육과정은 법률(28.5%)과 제도이해(13.4%) 수요가 높고, 심화 교육과정도 법률(20.0%)과 개입(12.4%) 교육 수요가 높았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모두 공통적으로 '법률, 제도이해, 개입'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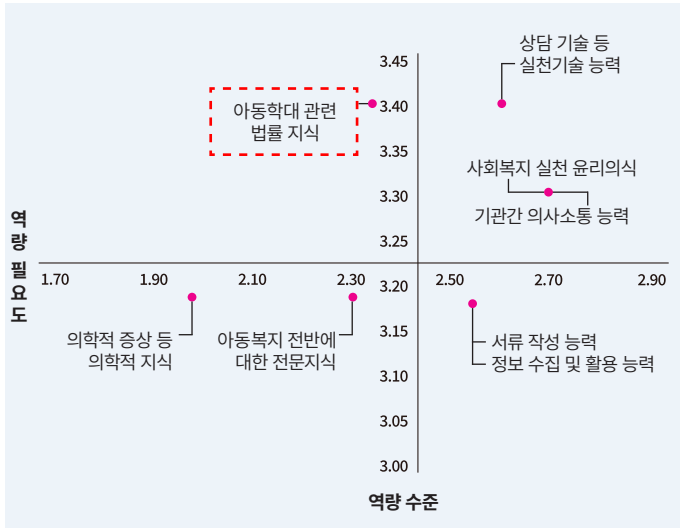


그림 1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량 수준 대비 필요 역량



그림 2 | 아동학대 교육의 업무 도움 정도 대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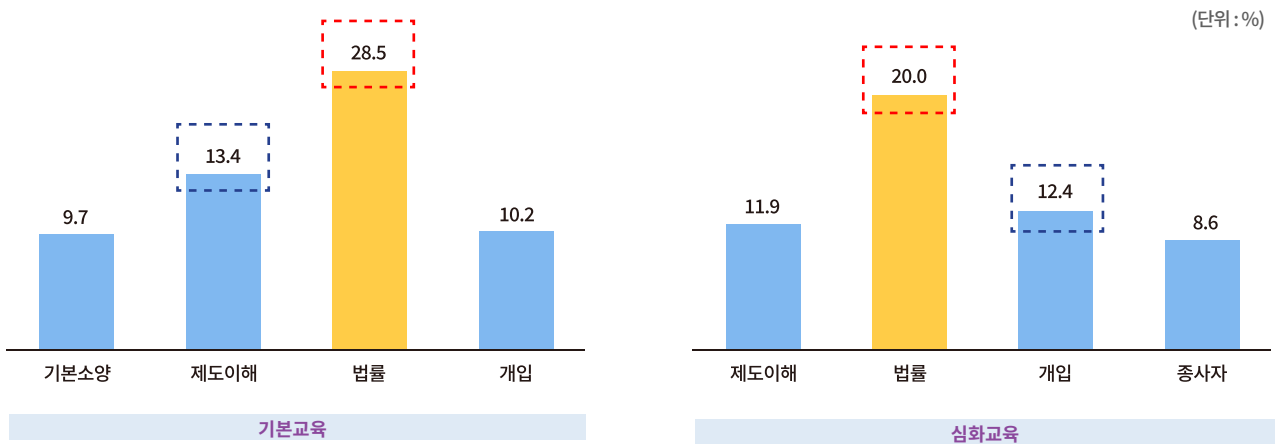


그림 3 | 기본·심화 교육과정의 수요

주요 대응기관 간 협업·연계 수준 높지만,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다각화 필요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소’와 연계수준 높으나, 향후 아동학대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기관’과는 사건 내용 공유 등 정보공유 강화가 더욱 요구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례관리 및 학대행위자 조치업무 등의 협업 강화 필요

- ‘경찰청 및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소’와 같은 주요 대응 기관과는 연계 수준이 높음.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교육·보육·돌봄 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의 경우 예방 및 사후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 활성화 필요.
-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사건 내용 공유 및 관련 서류회신’ 업무의 활발한 협력이 요구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피해 아동 가족 진단 및 입원 치료 지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신청 요청, 사례관리 진행 상황공유 및 계획 변경 등 협의 행위자 사례관리 불이행 통보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지원’ 등 업무의 협업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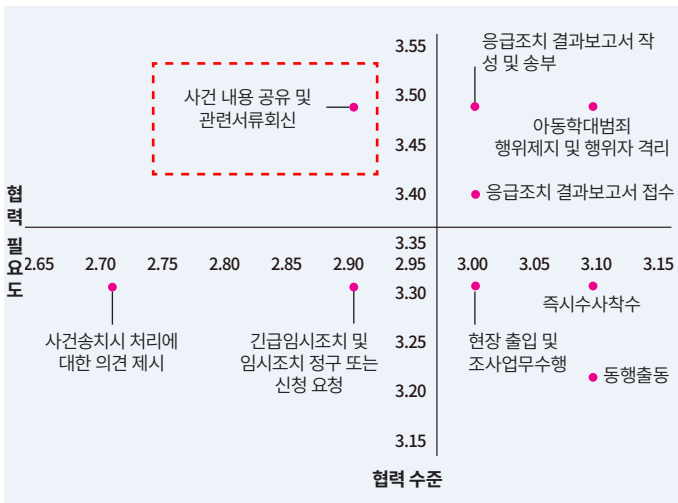


그림 4 | 수사기관의 연계·협력 수준 대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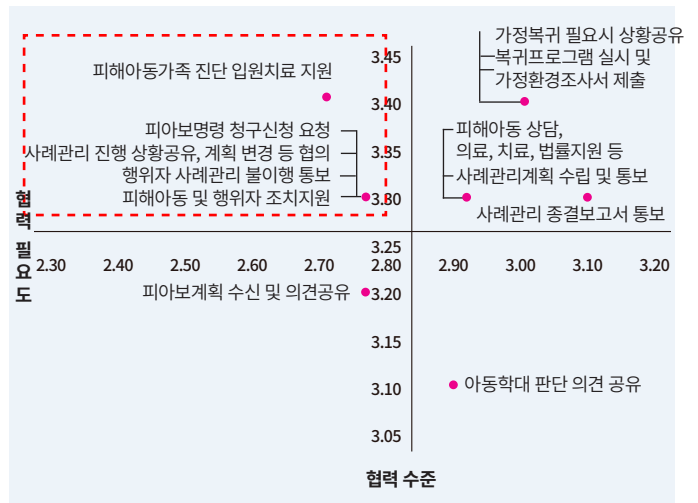


그림 5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협력 수준 대비 필요도

주 야간 불문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사례 담당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주당 최대 87시간 근무하며, 24시간 대응으로 인해 야간과 주말에도 현장조사 수행
 - 주중 일주일 평균 2.9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1회에 약 3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제외하면 약 일주일에 평균 49시간 업무를 수행함.
 - 일주일 평균 약 2.7회 정도 야간 재택당직을 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포함한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최대 8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야간과 주말의 출동 요청 건수의 약 80% 정도가 실제 출동으로 이어짐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야간과 주말에도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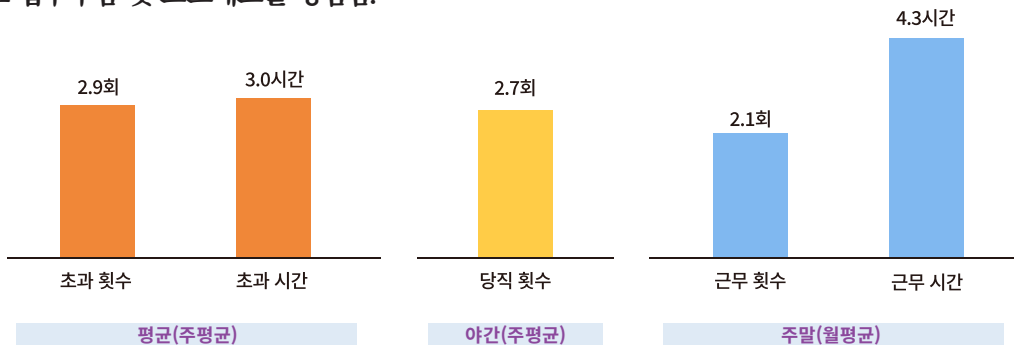


그림 6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초과 및 휴일 근무 현황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적정 사례는 연간 48.8건으로 추산, 현실은 1인당 연간 88.2건 사례 담당

-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총 소요시간 30.7시간²⁾을 근거로 1년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사례 건수를 계산하면 48.8건으로 추산.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연간 평균 88.2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어 적정 사례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사례를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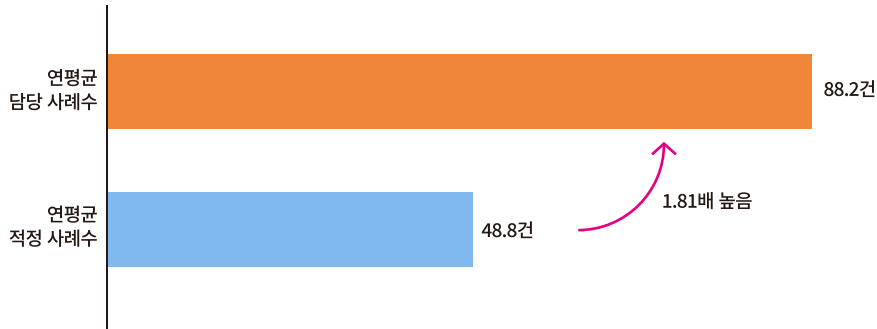


그림 71 연평균 적정 사례 수 및 담당 사례 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

핵심쟁점		정책 방향 및 지원방안	
전문 지식 및 기술 등 업무 역량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확대 중심의 교육방식 제고 및 체계적인 교육기관 마련 • 아동학대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슈퍼비전의 한계 	업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방식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여 의무화 및 교육참여 기반 마련 -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 교육체계 구축 • 슈퍼비전 및 컨설팅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업무 수행 시 즉시 컨설팅체계 구축 - 안내 지침서 혹은 사례집 발간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협업 체계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역할분장 한계 및 실무 시 원활한 협업을 위한 역할 제고 • 주요 대응체계 간 협업의 한계 및 긴밀한 협업체계 모색 	협업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업무수행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구분 및 정보공유 범위 구체화 - 공동업무수행지침과 해당 법률의 적용 현행화 • 아동학대 대응 원스톱 대응모델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원스톱 대응모델 구축 -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근로 환경 처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대응으로 인해 야간·주말 현장조사 수행 • 과도한 신고처리 건수로 업무 피로도 누적 및 과중한 업무량 	업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당직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당직체계 운영 - 야간 휴일 경찰 동행 요청 범위 구분 • 자치구별 적정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적정 인력(안) 제시

2)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총 소요시간(30.7시간) = 사례 1건당 소요시간(21.1시간)+현장조사 2인 투입시간(9.6시간)